

탁인아 - 실재와 부재 사이의 동물들

글. 박영택 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프로이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기이함은 감추어진 것을 폭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낯익은 것을 낯선 것으로 섬뜩하게 변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기이한 것은 오래되고 낯익은 어떤 것이 억압되어 정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테바는 기이함이란 '쾌락이 억압되는 바로 그곳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이함의 효과는 전혀 낯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하고 자연적인 것 뒤에 감춰진 모호하고 폐쇄된 영역의 가시화를 통해 나타난다. 이때 그 환상성의 공간은 초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현실 이면에 감춰진 틈새적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환상성은 낯익은 것을 낯선 것으로, 안전한 것을 불안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

한편 환상 속에서 오래되고 친숙한, 그러나 불안한 욕망들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데, 프로이트는 이를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불렀다. 이런 환상성은 욕망의 대리충족을 제공하고 위반을 향한 충동을 중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제도적 질서를 재확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위험과 공포, 그리고 사나운 야성, 본능이 깡그리 지워진, 박제에 다름 아닌 이 친숙한, 그러나 기이하고 환상적인 동물 형상이 일상공간에 이렇게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탁인아의 사진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까마득한 시절. 우리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공존했던 그들이 떠나가며 자취를 감추게 되자 다시금 그리워하며 현실의 세계로 호출한다. 오늘날 그 동물들의 본성과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시각적 오브제가 되어 인간들의 정서적 호소력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